“한국불교 미래 이끌 스님 육성”

27일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교육불사’ 후원의 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승가대학 교과 및 학제 개편, 장학승 및 교수사 지원 등 교육개혁안 정착을 위한 기금마련에 나섰다. 승진위는 오는 27일 오후6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인 정목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인사말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격려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가수 이은미와 장사익의 음성공양도 준비된다.

27일 후원의 밤을 앞두고 지난 13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교육불사는 한국불교를 중흥의 길로 이끄는 매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의 과제”라며 “이번에 개최할 후원의 밤은 종단의 핵심사업인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사부대중이 공감하고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자리”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교육원은 교육관련 법령

지난 12일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이 교육불사 기금 2000만원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13개를 제개정하는 등 승가교육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변화는 승가대학 교과개편, 전문교육기관 신설, 승가대학 교수사 지원과 같은 장학제도 확대로 가시화됐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지난해 교육불사 중요성에 공감한 많은 스님들이 문중 구분 없이 기금을 후원해준 덕분에 올해 교육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며 “교육원이 시행하는 장학제도와 교과 및 학제 개편안이 내년에도 이어지려면 제정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후원의 밤을 통해 모아진 사찰과 단체, 사부대중의 격려와 성원은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적립돼 지속적인 승가교육불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앞두고 교육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찰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이 지난 12일 승가교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같은 날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도 2000만원을 전했다. 우송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은 종도들이 항상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할 종단의 주요 종책이라는 데 공감해 십시일반 동참한다”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세영스님도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사찰에서 큰마음을 내줘 고맙다”고 인사하며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종단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군장병 격려에 사용해 달라”

수덕사·무진선원 軍지원기금 전달

덕숭총림 수덕사와 서울 무진선원은 국군장병을 위한 성금을 잇따라 기탁했다.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과 무진선원 주지 도선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군장병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공군 부대 위문금으로 쓰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찰 운영하기에 여러가지로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전해 줘 고맙다”며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가 꽃피울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은 “이번 기금이 종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5대 결사를 실천하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진선원 주지 도선스님도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기획국장 진우스님
상임감찰 탄공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기획국장에 진우스님, 상임감찰에 탄공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만적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기획국장 진우스님〈사진 위〉은 지난 1994년 범어사에서 정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능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공스님〈사진 아래〉은 1986년 망월암에서 정영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박인탁 기자

‘동북아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 진단

한중일 불교대회, 11월1일 양양 낙산사서 개최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동안 양양 낙산사에서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중일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와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불교계는 오는 9월초순께 중국 스님 40명이 한국에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을 체험하며 중국과 일본불교계간의 수행체험단 교류행사는 2012년 중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중국과 일본불교대표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14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일본불교대표단에게 “한국불교계는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사고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한 뒤 중국불교대표단에게는 지난해 한중일불교대회에서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중국불교대표단장인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용씬스님(하남성불교협회장)은 “한중일불교대회가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대회가 계속될수록 3국 불교계간의 우호증진은 더욱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불교대표단장인 나카무라 켄이치로 입정교성회 교토교회장은 “일본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예비회의를 통해 가을에 열릴 본대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조계종 미디어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진 언론인 및 방송인 21명을 조계종 미디어위원으로 임명했다. 〈사진〉 미디어위원회는 불교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미디어정책 자문과 더불어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자문, 전통불교문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불교가 바로서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추진중”이라며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미디어위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식차마나니 수계산림 봉녕사서 봉행

제19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 봉녕사에서 봉행됐다. 〈사진〉 전계사 종진스님, 교수아사리 철우스님, 갈마아사리 성우스님이 참석한 이번 수계산림에는 2009년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99명의 사미니 스님이 입방해 모두 식차마나니계를 받았다. 특히 올해 식차마나니 수계를 받은 스님들은 조계종 승려법 제30조의 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거해 인감날인한 자필 유언장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식차마나니는 출가 오중(五中)의 하나이다. 〈사분율〉에 따르면, 식차마나니는 비구니가 되는 구족계를 받는 준비기간에 수행하고 있는 사미니를 가리키며, 2년간 따로 6법을 배우고 행이 진실하고 견고한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어현경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4월12일자 종무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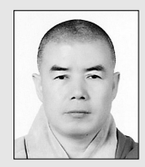
보경스님
이천 영축사

혜찬스님
서산 문수사

부연스님
예산 만월사

성탄스님
경주 심원사

수완스님
산청 정취암



운암스님
부산 청량사

승찬스님
김해 이덕사

정각스님
고양 원각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법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한국불교를 만들 것인가?’
‘한국불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이라는 큰 화두를 설정하여 사부대중과 함께 토론함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중흥이란 한국불교가 ‘시대와 중생계에 부응하며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생계의 혼란과 고통을 자신의 중심적 문제로 삼는 것이며, 불교를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꽃피우고, 인류사회의 큰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세계문명의 흐름을 잘 알아야 그 내용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종단의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2011년 1년간 매달 1회씩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와 전문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두 모여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 대토론회

- **주 제 :** 생명·생태문제와 한국불교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 이병인(부산대 교수)
  - ○**발제자 :** 유정길(에코붓다 공동대표)
  - ○**토론자 :**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 위원장),
    법응스님(불교와정책 편집인,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역))
    허남결(동국대 교수),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일 시 :** **불기2555(2011)년 4월 27일(수), 14: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02-2011-1810)**

불기2555(2011)년 진행 일정 및 주제

월	주 제
1. 27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2. 23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
3. 30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 종단 5대 결사를 중심으로
5. 25(수)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 – 발제자 :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6. 29(수)	사회 정의 실현과 불교의 자비실천
7. 27(수)	7~12월 대토론회 주제는 추후 확정 후 공고 예정
8. 31(수)	
9. 28(수)	
10. 26(수)	
11. 23(수)	
12. 21(수)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상기 내용은 종단의 주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제에 따라 1박2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토론회 당일 실시간으로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와 미디어붓다(http://www.mediabuddha.net/)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불기2555(201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자 승